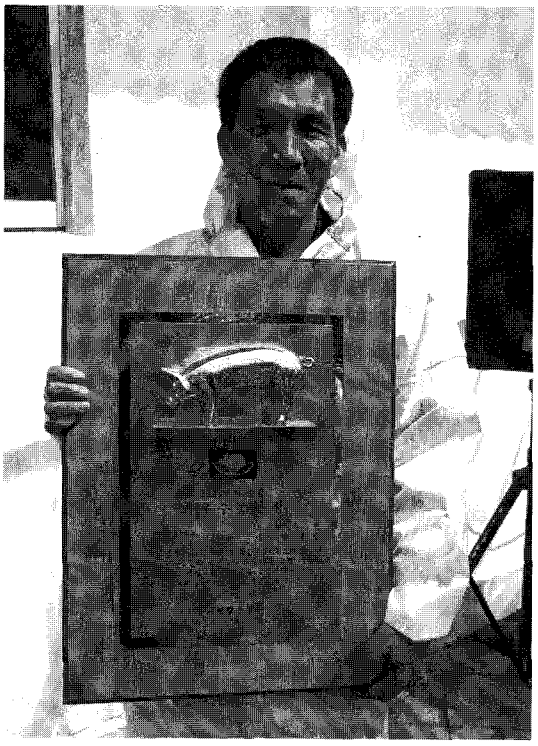
종돈장취재

2003년 본회 제1검정소 종합 최우수종돈장



▲ 2003년 본회 제1검정소 종합 최우수종돈장상을 수상한 포천종돈의 양상렬 대표

지난 3월 22일 본회 제1검정소 제235차 경매행사에서 2003년도 한해 동안 실시한 제1검정소 종돈능력 검정결과 종합 최우수종돈장에 포천종돈(경기 포천시 소재, 대표 양상렬)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포천종돈은 재래식 돈사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뜨거운 열정을 갖고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에 쏟는 정성은 남다르며,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우수종돈 생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또한 가격보다는 품질에 신경을 쓰며 일반 양돈농가에 우수하고 건강한 종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종돈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체계적인 종돈 계통구성과 직접 관리하는 정성

포천종돈 양상렬 대표(50세)는 1997년 2월부터 7년 2개월 동안 종돈장을 직접 운영해 오고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양상렬 대표는 영국의 육종회사, 구시월드, 세왕축산 등의 종

돈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우수한 종돈 생산을 위한 기술과 경험을 쌓아왔다.

포천종돈은 GGP 농장으로 모돈 250여두 규모 종돈장으로 듀록이 20%, 요크셔가 30%, 랜드레이스가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랜드레이스로 품종을 통일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천종돈을 시작할 때 양상렬 대표는 영국 JSR회사에서 백색계 100여두, 캐나다 DGI 제네틱스로부터 듀록 40두를 수입해 왔다. 이처럼 체계적인 구매를 통해 오합지졸 형태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계통이 형성될 수 있었다. 2001년부터는 자체 내에서 품종 기반이 정립되어 수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차후 4년 정도는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양상렬 대표는 종돈 수입시에 외국의 농장이나 육종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거치는 등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종돈을 구입하였다. 양상렬 대표는 "현재 종돈장에 있는 돼지들의 특성과 앞으로 보충해 나가야 할 점을 파악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 만큼만 선택적으로 구입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부(교배)를 양상렬 대표가 직접 하고 있으며, 자연교배가 30%, 인공수정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포천종돈 돈사, 인력 및 출품 현황

돈사는 총 14동(1,000여평)으로 임신사·교배사 3개동, 분만사 4개동, 자돈사 1개동, 육성·비육사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성·비육사 2개동은 비어 있는 상태이다.

임신사, 분만사를 제외하고 전부 재래식 톱밥돈사 형태로 수작업을 하고 있어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든다. 하지만 매일 톱밥을 교체해 줌으로써 온도를 일정하게,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

▲ 임신사·교배사 모습, 임신사·교배사 3동은 임신 초기·중기·말기로 세밀하게 나누어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양상렬 대표와 부인 김진난(45세)씨 외에 3명의 직원이 농장 일을 돌보고 있다. 돼지들을 일일이 관찰하고 점검함으로써 돼지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있다. 또한 집단 품종별로 따로 관리하고, 개체마다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자체 갱신용을 위한 돼지 보유와 일부 탈락용의 비육돈 출하 외에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로 월 100두 정도의 돼지를 출품하고 있다. 70일령의 돼지를 1검정소로는 1개월에 2번에 걸쳐 60두 정도, 2검정소로는 1개월에 1번에 걸쳐 40두 정도를 출품하고 있다.

또한 검정소에서 검정돈의 검정성적(선발지수)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하는 항목으로 일당증체량, 사료요구량, 등지방두께가 있는데, 포천종돈의 경우 다른 출품종돈장에 비해 높은 일당증체량과 낮은 사료요구율, 적절한 등지방두께가 나타나는 등 우수한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

▲ 분만사 모습, 분만사를 전부 가동시키지 않아 여유가 있으며, 정성들여 분만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포천종돈은 품종별 순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능력의 유전자를 보유한 종돈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포천종돈의 특징

■ 사육단계별 사양관리, 임신사의 방목장 활용

돈사는 사육단계별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임신사·교배사 3동은 임신초기·중기·말기로 나누어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임신사의 경우에 방목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흙으로 이루어진 야외방목장과 스톨사와 함께 군사방이 있어 실내방목장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연스럽게 적당한 운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투쟁방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결과 관리를 하는데 힘은 들지만 돼지의 경제수명과 건강상태는 상당히 좋다.

분만사의 경우에는 건물이 1개로 되어 있지만 2개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1개동이 2개씩으로 차단되어 구분되어 있다. 분만사를 전부 가동시키지 않아 여유가 있으며, 정성들여 분만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 All-in/All-out 시스템과 청결 유지로 질병 차단의 노력

포천종돈의 경우 산 속에 따로 위치해 있어 질병 전파의 위험이 적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농장 출입구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돈사마다 소독발판조가 놓여 있다.

또한 All-in/All-out 시스템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 무리의 돼지들이 다음 단계로 옮겨질 때, 전 단계의 돼지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비우고 있는 것으로 시설물까지 깨끗

포천종돈이 여타 종돈장과 다른 점은 양상렬 대표가 계통조성을 직접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GGP 농장을 유지하기 위한 품종별 순종 생산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수하고 건강한 종돈을 일반 양돈농가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올 수 있었다. 또한 포천종돈의 경우 다른 출품종돈장에 비해 높은 일당증체량과 낮은 사료요구율, 적절한 등지방두께가 나타나는 등 우수한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랜드레이스로 품종 단일화를 추진해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있다. 그 결과 돼지가 건강해지고 각종 질병 발생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돈사는 항상 깨끗하며, 질병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위생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양상렬 대표는 "재래식 시설이지만 청결관리가 엄격하여 설사병 등 질병 발생을 모르고 살고 있으며, 주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뛰어난 모돈 성적과 고능력으로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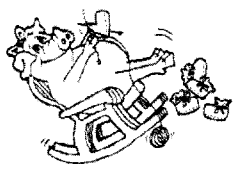
포천종돈의 모돈회전율은 2.48수준에 이르며, 분만율은 88~92%로 90%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 현재 경제산차는 평균 6산차 정도이지만, 모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8산차 이상으로 끌어올려 자돈의 반복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일계통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실산은 14~16두에 이르고 있으며, PSY 22~24두, MSY 20~22두 등 높은 성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사료요구율은 2.6~2.8 수준이며, 출하체중 115kg의 도달일령이 168일로 높은 사료효율과 높은 출하체중 및 출하일령 단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포천종돈은 재래식 톱밥돈사 형태로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지만, 우수하고 건강한 종돈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계통조성이 정착되어 있으며, 세심한 확인과 사양관리로 고능력의 종돈을 생산하여 양돈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

▲ 자돈 모습

품종단일화로 전문성 확보할 터

포천종돈이 여타 종돈장과 다른 점은 양상렬 대표가 계통조성을 직접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GGP 농장을 유지하기 위한 품종별 순종 생산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수하고 건강한 종돈을 일반 양돈농가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올 수 있었다. 또한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에 맞게 검토하여 필요한 종돈을 계획에 따라 구매함으로써 고능력의 유전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상렬 대표는 "앞으로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모돈 200두 규모로 약간 줄이고 랜드레이스로 품종 단일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품종 단일화를 통해 더욱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고능력의 건강한 종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상렬 대표는 "오늘날의 포천종돈이 있기까지는 분만과 자돈관리 등 종부를 제외한 농장 전반에 걸친 사양관리를 부인 김진난 여사가 세심하고 헌신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양돈